

식약청, 고시형 건강기능식품 재평가방안 마련 프로폴리스, 항균·항산화기능 인정받지 못해

연구소장 손재형

식약청은 지난 3월 30일 보건복지 인력개발원에서 열린 고시형 건강기능식품 37개 품목에 대한 재평가 공청회에 이어 오는 8월까지 업계 의견을 받아 9월까지 공전 개정안을 입안예고하고 올해에 건강기능식품공전을 개정하고 내년 3월에는 전 품목 positive 품목을 공개하며, 2007년 12월까지 모든 고시형 품목에 대해 재평가를 완료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이번 고시형 건강기능식품 재평가 방안은 건강식품의 기능성을 기타기능(항산화, 콜레스테롤 조절 등), 영양소 기능, 일반기능(건강기능 증진에 도움)의 세가지로 구분하여 단계적으로 그 기능성을 검토하는 방안이 논의 되었다.

이번에 발표된 기타기능 positive 9개품목에는 그동안 항균, 항산화 기능을 인정받아왔던 프로폴리스추출물 제품이 제외되어 양봉농가를 비롯한 양봉업계에 충격을 주고 있다. 이번 고시형 건강기능식품 재평가에서는 항균성, 원기회복, 자양강장에 도움, 신지대사 기능, 체력증지, 체질개선 등 포괄적이고 애매모호한 기능성 표현은 정리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그동안 항균성 등을 인정받아 오던 전 품목에 대해 그 평가를 유보함으로써 건강기능식품업계의 큰 반발을 사고 있다. 또한 프로폴리스와 포도씨 등의 항산화 효과에 대하여 기능 재평가 작업을 수행해 왔던 성미경교수(숙명여대 식품영양학과)는 프로폴리스의 항산화효과에 대하여 그 기능을 확실히 인정할 만한 결과를 얻지 못했다는 보고서를 제출함으로써 프로폴리스가 기타기능 선정에서 탈락되는 결정적인 원인이 되었다.

따라서 이대로 재평가 작업이 끝나게 되면 프로폴리스는 그동안 쓰여지던 항균, 항산화 작용 등의 표현대신 “건강증진에 도움이 됩니다.”라는 일반기능식품(기타기능이나 영양소기능 모두 불가능한 식품)으로 분류되게 프로폴리스 산업자체가 크게 위축될 위기에 처하게 된다.

이에 따라 양봉협회와 관련업계는 프로폴리스에 대한 세계 각국의 연구자료 등을 수집? 분석하여 올 8월 까지 제출하고 식약청에 이에 대한 재심의를 요구키로 하였으나 자료가 반영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재평가와 식약청의 추진일정은 단기적인 산업진흥보다는 건강기능식품의 과학화에 더 무게가 실려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소비자에게 안전한 기능식품을 제공하는 것이 법률의 취지인 만큼 이에 걸맞은 과학적인 자료를 우선시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되고 있다.

이밖에 로얄제리에 대한 영양식품, 고단백식품의 기능은 그대로 인정되어 영양소 기능식품으로 분류되었으며, 화분제품 또한 영양보급과 피부건강에 도움을 주는 기능이 어느 정도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2007년 12월 완료예정인 기타기능 예비품목에 선정되었다.

네팔산 수입벌꿀 판매 금지

구토 등 유발 독성 ‘그라야노톡신’ 함유 가능성 석청 제품섭취 자체당부

네팔산 수입 벌꿀(Mad-Honey)의 시중 유통이 잠정 중단된다.

매드하니(일명 : 석청)는 주로 히말라야 지역 고산지대에서 자생하는 론도덴드론(Rhododendron)속의 식물로부터 채취된 벌꿀로서, 론도덴드론 속에는 현기증, 저혈압, 구토 등의 중독증상을 유발하는 독소의 일종인 그라야노톡신(Grayaaanotoxin)이 자연적으로 함유돼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식물 자연독인 그라야노톡신이 함유된 론도덴드론 식물로부터 유래될 수 있는 벌꿀(Mad-Honey)이 ‘히말라야 석청’으로 표기돼 유통 판매될 우려가 있어, 유통중인 제품에 대해 수거 검사를 실시하는 한편 검사결과가 나올 때까지 유통을 중지한다고 29일 밝혔다.

최근 3년간 네팔산 벌꿀 수입현황

구분	수입현황			비고
	건수	중량(kg)	금액(US\$)	
계	14	8,048	37,498	
2003년	2	806	5,928	
2004년	12	7,242	31,570	
2005.07.31	0	0	0	

식약청은 이와 함께 네팔 등 히말라야 지역에서 수입되는 모든 벌꿀에 대해 그라야노톡신이 함유되지 않았다는 증명서를 징수토록 조치했다.

식약청은 아울러 “가정에서 보관하고 있는 수입산 벌꿀 제품 중 원산지가 네팔이고 ‘석청’이라고 표기된 제품은 검사결과 발표시까지 섭취하지 말 것”을 당부하는 한편 우리나라에는 이 식물이 자생하지 않기 때문에 국산 석청과는 관련이 없다고 밝혔다.

“우유에 벌꿀 타서 마셔라”

칼슘 흡수율을 높여 골다공증 예방

퍼듀대 연구진

벌꿀이 유제품이나 건강보조식품에 들어 있는 칼슘의 흡수율을 높이는 작용이 있다는 연구 보고가 나왔다. 미국 퍼듀대학 연구진은 실험용 쥐(랫드)를 대상으로 △칼슘△칼슘과 벌꿀△칼슘과 비트 올리고당 등 7종류의 시료를 먹이고서 뼈의 칼슘 흡수량을 조사했다.

그 결과 쥐들에게 먹인 양을 사람의 경우로 환산하여 1큰술의 벌꿀을 1컵 이상의 우유나 요구르트와 함께 섭취하면 칼슘 흡수량이 크게 늘어나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칼슘의 흡수율은 벌꿀의 섭취량에 비례하여 높아지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연구 결과는 지난 4월 샌디에이고에서 열린 미국실험생물학회 회의에서도 보고됐다.

미국 벌꿀협회(NHB)의 영양 컨설턴트의 캐서린 빌스 박사는 퍼듀대학 연구진의 실험 결과는 일상적인 식사에서 칼슘의 권장량을 섭취하고자 노력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좋은 영양 지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미국에서 발표된 연구 보고에 따르면 2020년엔 50세가 넘는 미국인의 절반 정도가 골다공증이나 골량 감소로 골절 위험이 있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골다공증은 자각 증상이 없는 질병이어서 환자 수가 보고된 것보다 3~4배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가장 효과적인 예방법인 칼슘 섭취와 섭취한 칼슘의 흡수율을 높이는 데는 비타민D와 함께 벌꿀에 포함되어 있는 당분이 유용한 것으로 밝혀진 것.

농림부, 일본 농식품 제도 변경 대비 나서

오는 5월 일본의 농식품 잔류농약 관리제도 변경을 앞두고 농림부가 수출업체와 농가대상으로 농약안전사용 교육을 실시하는 등 본격 대비에 나섰다.

일본의 '농식품의 잔류농약 관리제도'는 기존 '네가티브 리스트 제도'에서 '포지티브 리스트 제도'로 변경돼 △농식품에 잔류농약 허용기준 리스트를 설정 허용기준을 초과하는 농식품의 유통을 금지하고 △리스트에 포함되지 않는 성분은 일률기준치 0.01ppm 적용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기존의 네가티브 리스트제도에서는 잔류농약 허용기준 리스트를 선정하고 허용기준을 초과하는 농식품의 식품의 유통을 금지하되, 리스트에 포함되지 않는 성분은 기본적으로 유통을 규제하지 않았다.

농림부는 지난해 7월부터 농촌진흥청, 농산물품질관리원, 농산물유통공사등과 합동으로 T/F 팀을 구성해 대응책을 마련해 왔다. 특히 파프리카, 토마토 등 주요 대일 수출품목에 대해서는 국내사용 중인 농약성분 14종을 반영시켰으며 수출농가에 대한 농약안전사용 교육을 강화해왔다.

농림부는 일본의 포지티브 리스트 제도 시행일이 임박함에 따라 11일부터 지역별 순회교육을 통해 대일 수출농산물 안전성 관리를 재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농림부는 향후에도 농촌진흥청, 농수산물유통공사에서 실시하는 수출컨설팅에서 농약안전사용을 집중 교육함으로써 대일 수출 농식품의 안전성을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갈 방침이다.

3월 30일은 '벌 치료의 날'

벌꿀 등 '녹색의약품' 효능 홍보 국제양봉가 단체연합 제정

국제양봉가 단체연합회(APIMONDIA)의 아피세라피위원회(Apitherap Commission)는 3월 30일을 '아피세라피 데이(벌 치료의 날)'로 정하고 오는 30일 꿀벌 제품의 건강 효과를 홍보하는 제 1회 행사를 갖았다.

아피세라피는 벌꿀, 프로폴리스, 화분, 수벌 애벌레 추출물(drone larvae), 봉독(bee venom), 로얄제리를 사용하여 건강을 유지하고 여러 질병을 치료하는 것이다.

미국 꿀벌 협회에 따르면 근년 세계 여러 나라들에서 꿀벌 관련 제품들은 '녹색의약품(green medicine)'이라 불리며 많이 사용되고 있다.

아피세라피위원회는 최근엔 쿠바에서 아피세라피 연수회를 열고 600명의 의료 종사자들에게 꿀벌 제품이 항생제 내성 감염증, 패혈증, 화상 등의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을 홍보했다.

3월 30일은 벌독(apitoxin)의 과학적 치료법을 개척한 필립 테르크(philipp Terc)가 태어난 날이다.

프로폴리스 항산화작용 인체시험서 확인

산화형알부민 감소, 환원형알부민 증가

일본 아마다양봉장이 프로폴리스의 항산화작용을 인체시험을 통해 확인했다. 연구팀은 이번 시험에서 혈중 알부민량을 지표로 산화스트레스를 정량적으로 측정했다. 시험에서는 국제대회의 우승경험이 있는 기후大 검도부 학생 11명에게 연습으로 상당히 격한 운동을 했을 때에 체내에서 발생하는 산화스트레스에 의한 영향을 프로폴리스의 응용으로 완화시킬 수 있는가를 조사한 것.

시험에 사용된 프로폴리스는 브라질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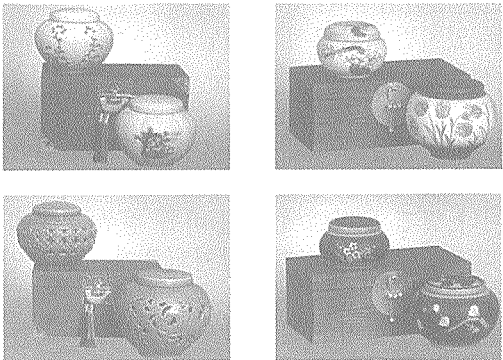
이중맹검시험을 이용하여 플라세보군과 프로폴리스군 등 두 그룹으로 나눠 4일간의 검도합숙과 그후 하루의 회복기 등 총 5일간에 시험식을 섭취토록 했다.

일반적으로 산화스트레스를 받아 산화형알부민이 증가하면 환원형알부민은 줄어든다.

시험결과 플라세보군보다 프로폴리스군이 연구기간 중 환원형알부민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 산화형알부민은 그다지 증가하지 않았다.

체내의 산화스트레스 정도를 측정할 때 비타민C 등 대사가 빠른 물질을 지표로 하면 작은 환경의 변화에도 쉽게 좌우되기 때문에 정량적으로 수치화하는 것이 어려웠다.

이번 시험을 실시한 기후大 연구팀은 이전부터 혈중 산화형알부민량을 지표로 하여 체내의 산화스트레스를 수치화하는 연구를 진행해 왔다.



오늘날 전문성과 숙련된 기술은 무인경쟁 시대에서 필수요건입니다.

저희는 그동안 축적된 기술과 오랜 경험을 토대로 보다 좋은 제품을 저렴하게 공급하고 고객의 수요 증진을 만 족시켜드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따뜻한 격려와 성원을 보내주시면, 더욱 정진 이어 발전된 모습과 성숙한 이미지로 보답하겠습니다.

단지류 전문생산

한솔세라믹주식회사
 경기도 광주시 실촌면 유사리 333
 TEL : (031) 769-5222/3
 FAX : (031) 769-5224

프로폴리스가 궁금해요

Q1 : “프로폴리스를 계속 섭취해도 중독성이 없을까요? 금단증상이 있을까 걱정되어 문의드립니다.”

A : 마약류나 일부 의약품에서는 지속적인 섭취를 하다 중단하게 되면 몸에 기능이 일시적으로 불균형을 이루면서 여러 가지 안 좋은 현상을 유발시키기도 합니다. 당사의 수용성 프로폴리스제품인 ‘프로비 프로폴리스’는 건강을 위해 보조적으로 섭취하시는 식품입니다. 이해하시기 쉽게 밥과 같은 식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밥을 먹다 먹지 않는다 하여 건강을 해치는 현상이 유발시키지 않는 것과 같다 하겠습니까. 다시 말씀드리자면 당사의 ‘프로비 프로폴리스’는 식약청과 FDA에서 그 안전성을 인정받은 안전한 수용성의 항균, 항산화 효능을 지닌 건강기능식품으로 장기간 섭취 하신다 해도 고객님의 우려하시는 일은 없는 안전한 건강식품입니다.

Q2 : “유통기한이 지났는데 섭취해도 될까요? 이상이 있다면 어떤 증상이 있을 수 있나요?”

A : 건강기능식품은 품목에 따라 유통기한이 다를 수 있으나 ‘프로비 프로폴리스’의 유통기한은 2년입니다. 유통 기한이 지난 제품의 경우 보관 상태나, 개봉여부에 따라 조금 달라질 수는 있지만, 각급적 고객님의 안전일 위해 섭취를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섭취시 나타날 수 있는 증상으로는 구토, 복통, 심한 설사와 피부 발진 등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일지라도 피부 외용제로의 사용은 가능하기에 외용제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피부에 사용시는 목욕물에 타서 사용하시거나, 목욕 후 피부 건조나 가려움증 등에 바를 경우는 피부 보습제에 섞어 바르면 더욱 효과적입니다. 또한, 외상이나 벌레 물린데에 직접 바를 경우 처음엔 강력한 항균작용으로 잠시 따가울 수 있지만 금방 따가움이 사라지면서 상처회복에 효과적인 반응이 나타나게 됩니다.

Q3 : “몸에 열이 많은 사람으로 프로폴리스를 섭취하고자 합니다. 효과를 기대해도 될까요?”

A: 프로폴리스는 항균, 항산화 효능을 지닌 건강기능식품입니다. 몸에 열이 많은 분은 액성이 따뜻한 프로폴리스를 드실 때는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신다면 더욱 효과적이고 빠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프로폴리스의 효과 증대를 위해서는 장과 위의 흡수기능의 점검이 필요합니다. 장이 좋지 않다면 장 건강에 도움이 되는 중성의 유산균 제제와 함께 섭취하시고, 위의 기능이 안 좋으시다면 위장의 건강개선에 도움이 되는 제품과 같이 프로폴리스를 섭취하실 것이 좋습니다. 다른 식품과 함께 프로폴리스 섭취할 때는 프로폴리스의 양보다 유산균이나 위 건강개선에 도움이 되는 제제를 더 많이 섭취하다 서서히 프로폴리스 양을 늘려 나가면 아주 편안하게 건강이 개선되는 현상을 빠른 시간 안에 체험하실 수 있습니다. 열이 많은 체질은 열탕의 목욕이나 찜질방, 등의 사용은 삼가야 하며 체온을 항상 서늘하게 온도를 조절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프로폴리스 섭취할 때도 미지근한 물이나 따뜻한 물보다는 시원한 물에 타서 드시기 바랍니다.